

yeong yang

WEB CONTENTS

가장 
다면적인
영양

2025년 05월 12일 19시 39분

ë¸©ì	2
ë¸©ì	3
ì¸¸ì¸¸(ì¸¸ì¸¸)	3
ì¸¸ì¸¸(ì¸¸ì¸¸)	3
ì¸¸ì¸¸(ì¸¸ì¸¸)	3
ì¸¸ì¸¸(ì¸¸ì¸¸)	3

마을풍경

H 마을둘러보기 > 마을소개 > 마을풍경



신사리(新泗里)

내를 따라서 마을이 이루어졌는데 교통은 비교적 불편하다. 본래 영양군 남면의 지역으로 서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에 신촌동·서야동·사천동을 합하여 특히 신촌(新村)과 사천(泗川)의 이름을 따다가 신사리라고 하여 입암면에 들게 한다. 지금은 신사초등학교가 있다.



연당리(蓮塘里)

마을 입구에 가늘고 길게 솟아 있는 바위가 있으니 이름하여 입암이요, 입암에서 청기로 넘어 가는 길목이 된다. 마을과 뒷산에 흰 돌이 많다고 하여 돌배기라고도 한다. 본래 진보군 북면의 지역으로 서 연못이 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에 생부동과 주억동, 그리고 입암동을 합하여 연당리라 하여 입암에 들게 했다.



대천리(大泉里)

안동시 임동면(臨東面) 갈전리 지리실골과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서편 한골재와 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옛 적 길이 불편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무리를 지어 숲이 우거진 산길을 가슴을 조이며 다녔다고 한다. 본래 영양군 남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 대거리·자암리·천곡리·늑구리를 합하여 대천리라 불러 입암면에 들게 한다. 대거(大巨)와 천곡(泉谷)의 이름을 따라 붙인 마을의 이름이다.



금학리(琴鶴里)

안동군 임동면의 대곡리와 사이를 하고 있으며 흰 소나무 곧 백송이 자생하고 있다. 비교적 교통이 불편하고 지대가 높아서 가을 때에는 물이 모자라기도 한다. 본래 영양군 남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 금대동고 학산동을 합하여 금학리라고 부르게 된다. 금대(琴大)와 학산(鶴山)의 이름을 따다가 합하여 지은 이름이다.

YeongYang
WEB CONTENTS

